

---

# 「New Normal 시대의 여성 리더십」 공모전 작성 양식

---

제 목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여성 공동체
-----	------------------------

[작성서식] 글씨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2포인트 / 분량 : 단면 5페이지 내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4.0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환경문제를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 기준은 ‘느린 성장’ ‘지속가능성’, ‘과정 중심’ ‘공유’ 등 새로운 혁신을 내세웠다. 과연 뉴노멀의 시대가 다가왔는가?

뉴노멀 시대라는 체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2020년 봄에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이 도래하면서 더욱 깊게 다가오게 되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게 된 우리는 경제 성장보다는 생명 가치를,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유보다는 서로를 돕는 공유의 가치가 이 시대에 필요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여성 리더십(female leadership)을 여성 리더가 이끄는 국가의 사망자 수가 남성 리더가 이끄는 국가의 사망자 수보다 6배 적은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데이터 중심적 사고, 뉴질랜드 총리 자신다 아데른(Jacinda Ardern)의 공감적 합리성, 대만 총통 차이잉웬(Tsai Ing-wen)의 조용한 회복탄력성(동아비즈니스, 2020. 9. 3)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점은 여성 리더십을 개인의 자질과 성과만을 바라보는 피상적인 분석일 수 밖에 없다. 사실 그동안 여성 리더십 연구는 여성이 어떻게 리더의 자리에 이루게 되었는지, 리더가 되어서 한 일의 성과와 성공, 자질을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다. 한 여성 개인의 뛰어난 리더 역량을 여성 리더십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 글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여성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특징은 어떠하며 여성의 위치는 어떠한가?

장경섭(2009)은 한국사회가 급변한 경제발전과 빠른 근대화로 인해 ‘압축적 근대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즉 압축적 근대성이란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문명적 변화가 극히 응축적인 면들을 가지면서도 시-공간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며 매우 복합적인 성격의 문명이 구성-재구성되는 상태를 말한다. 압축적 근대성은 한국사회의 경제적 부를 일으켰다. 이러한 경제적인 발전은 개인화(홍찬숙, 2015)현상을 촉진시켰다. 그래서 한국의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형태로 바뀌고, 여성들의 사회진출도 두드러졌다.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성을 기반으로 펼쳐진 압축적 개인화는 여성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비균형적이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제공되는 의료 보장과 교육의 혜택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월등하다. 그러나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정치와 경제 분야는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2020년 한국의 성 격차 지수 보고서 (자료: 세계경제포럼)

<그림 1>에서 나타난 성격차 지수 보고서에서 보았듯이 여성의 평등한 위치성을 위해 경제 분야에서의 평등한 고용과 임금, 정치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압축적으로 발전한 경제성장과 개인화의 특성을 한국사회와 교육과 의료분야에서 평등을 이룬 반면, 남성의 위치에 비해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위치는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요구되는 여성 리더십은 무엇인가?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국가적이거나 세계적인 것 보다 지역적이고 생활적인 것에 기반한 돌봄, 먹거리, 협동조합 등의 공동체성을 돌아보게 하였다. 현대 사회의 공동체성은 어떠한가? 바우만(Bauman)은 『액체근대』에서 현대사회가 개인의 선택이라는 자율성이 확대되었지만 그 자율성에 대한 책임 역시 개인이 온전히 져야 하기 때문에 각 개인들은 불안한 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바라보았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개인들은 다양한 공동체를 찾는 것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과거의 공동체가 매우 고정적이고 정체화되었다면, 현대의 공동체는 개인의 관심사와 목표에 따라 달라지고 다양해진다. 그래서 과거의 세계 중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교육, 육아, 취미, 세대, 먹거리-에 따라 세분화되어 간다. 여성주의 경제학자인 김슨-그레이엄(Gibson-Graham)은 개발 대신 ‘상호 의존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윤리와 경제 공동체를 제시한다. 과도한 경쟁으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호 의존의 방식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경쟁과 개발 담

론만을 추구해 왔던 기존의 경제와 자본주의 질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이다. 세계 곳곳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인 마라리큐람에서 20-40명 내외의 여성들이 저축 공동체를 만들어 극빈자를 위해 고용을 창출한 사례이다.

<그림 2> 김슨-그레이엄이 제시한 비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자본주의 형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림 2> The iceberg. From Community Economies Collective 2001;draw by Ken Byrne (70p)

경제는 임금 노동이나, 시장의 생산, 자본주의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거리, 동네, 은퇴자들, 친구 사이, 자원봉사자들,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생산자 협동조합, 비-자본주의 회사 등에서도 일어나며 다양한 모임과 공동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슨-그레이엄이 제시한 것은 자본주의와 다른 경제 공동체만을 지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지속가능한’ 소유가 아닌 공유가 담긴 윤리적 가치를 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제 체제는 그동안 주요한 경제 구조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이 리더가 되어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포 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MORE(Mapo Organization for Reclaiming Economy) 이하 모아)를 들 수 있다. 모아는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능동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경제관계를 맺으며, 자립과 연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체이다. ‘모아’ 라는 명칭은 마포의 다양한 공동체의 힘을 모으자는 취지를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이러한 운동은 현재의 경제 구조상 마을이라는 공간에 많은 여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아 경제 공동체는 총 4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① 소비운동: 공동체가게를 통해 관계를 맺고 기금을 만드는 소비운동, ② 공동체은행운동: 개별적으로 은행에 예치해 둔 자금을 모아 공동체 구성원이 이용하게 하는 공동체은행 운동, ③ 필요생산운동: 꼭 필요하지만 시장이 공급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필요생산 운동 ④ 공유재 확대운동: 공동의 것을 늘이는 공유재 확대운동 등을 펼쳐가고 있다. 이

외에도 2012년부터 시작된 금천구 ‘암탉 우는 마을’의 경우도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모여 폐현수막 화단을 만든다거나 텃밭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농약을 쓰지 않고, 미생물 EM을 활용하여 친환경 재배를 하는 등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마을로 발전하고 있다.

2012년 창립된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살림의료 생협) 역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여성 리더십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다.

2012년 평등, 평화, 협동을 지향하는 여성주의자와 의료인, 은평구 주민 300여명으로 2월 창립을 하고, 그 해 8월 살림의원(가정의학의원)개원 그리고 8월 건강 화력소인 다-Gym을 열었다. 2014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합원 1450명으로 증가하여 건강과 의료, 복지에 관련된 공공의 사회적 목적을 지역주민과 의료인 등이 건강마을 살림이로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공동체이다. 이 협동조합의 정관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등·평화·협동을 지향하는 여성주의자, 의료인, 은평구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창립하였다.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1.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이웃과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임을 믿는다.
2.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건강’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임을 믿는다.
3. 건강한 환경이란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와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건강한 관계임을 믿는다.
4. 건강한 사회는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적, 성취지향적 문화를 벗어나 대안적 경제와 협동적 삶의 방식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믿는다.
5. 건강은 약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실현됨을 믿는다.
6. 안전하게 아이를 키우며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7.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는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는 마을공동체에서 가능하다고 믿는다.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러한 믿음으로 여성, 성소수자, 아동, 청소년, 노인, 경제적 약자, 이주민, 장애인 등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하고자 한다.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중 전문)

위의 전문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 ‘이웃’의 관계를 들어내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료 생활협동조합이다.

정리를 하면, 본 글은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라는 점에서 기존에 제시했던 가치에서 보다 많은 윤리성과 가치지향성을 요구한다고 바라본다. 사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집단적인 경제 공동체는 곳곳에 있어 왔다. 기존의 경제 구조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먹거리, 공동 육아, 의료 생협이나 경제 생활공동체의 형태로 존재해왔지만 뉴노멀 시대의 여성 리더십의 모델

로 연구된 적은 없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의 시대에 여성 리더십은 여성 한 개인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집단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이끌어 가는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윤리적 가치성, 공유, 지속가능성, 생명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이끄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여성 리더십은 개인의 성공이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공동체성을 중심적인 가치로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공동체들을 발굴하고 기록하며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여성 리더십 모델을 제시하고, 연구하는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동아비즈니스」. 2020. 9. 3. “코로나 위기 속에 부상하는 여성 리더십”
- 깁슨-그레이엄(Gibson-Graham). 2013.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 여성주의 정치경제 비판』 엄은희·이현재 역. 서울: 알트.
- 바우만. 2009. 『액체 근대』 이일숙 역. 강.
- 장경섭. 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1장.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창작과 비평사.
- 홍찬숙. 2015. 『개인화』 서울대 여성연구소.
- Gibson-Graham. J. K. 2006. Postcapitalist Politic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